" 너, 아빠 다시는 안 볼거야? "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값으로 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아들이 지름길로 빨리 다녀오자 아버지는 2,000원을 깎아 8,000원만 주었다. 아들이 삐죽이 입을 내밀자, 아버지는 " 너, 아빠 다시는 안 볼거야? "라고 윽박지른다. 현장에서는 시공 기술자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하여도 클라이언트들이 외면한다. 씁쓸한 삽화이다.

장인수
현대건설(주) 행담도 현장 소장

해외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설계 변경이란 용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목적물의 도면 변경인 디자인 체인지(design change)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무를 접하면서 도급 내역서상의 단가/금액을 변경하는 작업 역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째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설 공법과 관련하여 가끔 도면도 바꾸어야 하니까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구상하여 도출해내는 것도 설계라 할 수 있으니 이를 설계 변경이라 하는 것인지….

좌우지간 설계 변경이란 용어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이 설계 변경 내역에 가설 공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클라이언트가 시공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요구하는 목적물을 정해진 품질로 공급받고자 한다. 그리고, 시공업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목적물을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시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 공법은 어디까지나 시공업자의 몫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가설 공법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목적물을 시공업자가 시공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설치하였다가 목적물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한 공법을 한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스럽게 느껴진다. 클라이언트가 한정한 가설 공법보다 시공업자가 선택한 공법이 더 경제적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시공업자가 자신의 노하우나 노력을 경주하여 다른 공법을 채택하였을 때 계약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경제성을 추구하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경할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던가.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신공법 개발인 경우는 그 방법이나 절차는 비록 어렵고 까다롭지만 그나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래 공법인 경우는 금액이 줄기만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의 대가로 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아들이 지름길로 빨리 갔다오자, 8,000원만 주는 꼴이다. 아들이 약속과 다르다며 입을 내밀자 " 너, 아빠 다시 안 볼거야? " 하는 식으로 윽박지를 일만은 아닌데….

클라이언트가 정한 공법이 계약 기간 내에도 개발·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굳이 계약 전에 한정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알다시피 건설 현장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지질 조건, 지하 수위 등)에 의해 재래 공법이라도 어느 공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천차 만별(千差 萬別)이다. 따라서, 이를 한정하는 것은 기술자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사회 정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에 얽매여 왜곡되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찾아내어 후발 기술자의 노력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을 솟은 머리 정 맞기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려니 하거나, 현행 제도로는 곤란한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클라이언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깊이 생각해보면, 입찰 제도나 계약 방법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뒤얽혀 일일이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된다.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진다. 물론, 가설 공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에 대한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 시공업자로부터의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한 경쟁 시대 해외 시공업자는 국내 건설업체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